

“이석기 세력과 야권연대 못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韓新協 공동 인터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비상식적인 세력과는 야권연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 5면>
이날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석기 의원과 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권연대의 목적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교체, 국민의 삶을 편하고 보다 낫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이 동의할 수준의 야권 연대를 해야 하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연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석기 의원에 통합진보당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를, 통합진보당에는 이석기 의원의 제명이나 출당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이후 민주당 대표가 야권연대와 관련 이처럼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통합진보당의 지도부 선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이날부터 오는 30일 까지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했으며 신·구당권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경기 동부연합 등을 주축으로 한 구당권과가 당권을 장악한다면 이석기 의원의 제명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야권연대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의 종북논란과 거리두기로 보여진다”며 “통합진보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28억 광주 폴리 도심 흥물 되려나

주변과 부조화 속 관리마저 안돼 낙서·훼손 방치 심각 시민들 외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조성된 프란시스코 산인의 ‘폴리(Folly)’인 ‘사랑방’은 흥물로 변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이 남겨놓은 의미 없는 낙서로 가득하고 주변엔 현란한 그래피티까지 더해지면서 지역민들의 ‘사랑방’ 역할은 커녕, ‘혐오 시설’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콘크리트로 된 작품에 스며든 낙서를 지우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1000만원. 여기에 관리를 맡은 광주문화재단은 7월 1일부터 1700만원을 들여 야간 경비(밤 9시~오전 7시)까지 세울 계획이다.
광주시의 계획대로 대표적 도시 아이콘으로 남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관광상품은 커녕, 예산만 먹는 도시의 ‘고급 쓰레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의 ‘폴리(Folly) 프로젝트’가 중대 기로에 섰다. 28억원을 들여 만들어놓은 폴리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공시설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표적 도심 문화 관광상품으로 키워낼 활성화방안이 마

련되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후 3시 광주NGO센터에서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과 공동으로 ‘광주 폴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민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광주시의 ‘폴리(Folly)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8억원을 투입해 11개의 폴리가 설치됐지만 장동사거리에서 조성된 후안 헤레로스 의 ‘소통의 오두막’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따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란시스코 산인의 ‘사랑방’의 경우 작품 자체가 훼손됐고, 순화상씨의 ‘푸른길 문화센터’는 개방조차 안돼 발길이 끊긴 상황이다. 문화재단의 ‘광주 폴리투어’도 지난 4월 첫번째 ‘집중(체원) 투어’의 경우 참가자가 없어 무산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계에서는 세계 유명 건축가들을 동원한 ‘스타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딱딱나 좁은 인도에 설치되면서 보행권을 위협하는 시설물로 전락했다거나, 주변 도시적 맥락과의 연계를 고



26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옆 인도에 조성된 프란시스코 산인의 폴리(Folly) ‘사랑방’이 수많은 낙서로 뒤덮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하지 않은 채 설치된 조형물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활성화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폴리를 예산(5400만원) 중 ▲11개 폴리 청소비 2600만원 ▲‘사랑방’ 폴리 보수비 1000만원 ▲‘사랑방’ 야간 경비 용역비 1700만원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어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발굴

이나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에는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28억원, 올해는 25억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으니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문화계에서는 광주시가 폴리를 도심 관광상품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내리는 공공시설물로 육성할 정책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활용 계

획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순미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모임’ 대표는 “자식만 많이 낳으면 되는 것 아니라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방통행식이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신성자동차(주)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한-EU FTA 관세인하가격 선적용 판매
062)226-0001
Mercedes-Benz

민선5기 중간평가

2 지방재정 고갈

민선 5기가 반란점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가뜰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은 늘어만 가는 복지비에 발목을 잡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보육과 무상급식, 의무교육, 다문화 지원 등과 관련된 각 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올해 책정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모두 1조5200억원으로 총 예산 3조4928억원 가운데 30.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예산 3

복지 덩터기에 쌓이는 빚... 현안사업 엄두 못내

조528억원의 27.4%인 9595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됐다. 전체 예산이 2조3055억원에 사회복지 예산이 3013억원이었던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 총 예산은 1.7배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무려 3.5배가 증가한 것이다.
지방재정 지립도가 41.1%에 불과, 전국 광역시 평균인 55%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음에도 복지비 부담은 오히려 갈수록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3월부터 0~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로 337억원이 필요해졌다.
사회복지비용은 필수경비에서 일 반 현안사업 예산에 우선해 배정된다 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일반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1년에는 72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일반 현안사업들을 추진했다.
◇전남도=전남도 역시 복지분야 예산이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전남도 전체예산 5조

3503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1조 4784억원으로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 살림살이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0%대에 육박한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국비대비 지방비 비중은 2009년 24.6%에서 올해 25.7%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복지예산 전체로 보면 전남도는 올해 40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전남도의 올해 지방세 수입(일반회계) 6530억원의 61.3%에 달하는 액수다.

재정고갈로 인해 필요불급한 사업 인데도 빚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도정비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880억원을 들여 수요가 많은 지방도에 대한 정비에 나설 계획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5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양복관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은 국비로 부담하는 재정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7월 OPEN

상무지구 최초!

상무지구 중심의 첫 도시형 생활주택
진아건설이 처음 선보이는 상무 리체시티

- 진아건설이 처음 선보이는 도시형 생활주택
-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수익형 부동산
- 무제한 전매가 가능한 소액투자상품
- 투자의 부담을 낮춘 다양한 세제혜택

무제한 전매가능, 한채이상 양도세 0, 안정적 임대수익, 취·등록세 면제, 전세대 풀옵션

RICHE CITY 리체시티
도시형 생활주택 297세대 / 오피스텔 90세대 | 총 387세대
상무지구 프리미엄 소형아파트
문의전화. 062) 374-0000